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 열릴지 주목

■ 北 조문단 - 당국 고위급 접촉 이뤄질까

북측 면담 요청 땐 정부 수용 가능성 높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갈등과 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정부가 20일 북측 조문단의 방문을 수용할 방침을 밝히자 북측은 이날 지난해 12월 이후 시행해온 육로통행 및 체류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남측에 통보, 남북한 간 해빙무드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포함된 6명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명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총재 유종하· 이하 한적)도 이날 북한의 조선적십자사(북적)에 추석(10.3)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 대남 실세인 김양건 부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비중이 매우 높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북측의 고위 인사들이 조문단에 포함돼 있어 이들이 체류하는 이틀 동안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동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장으로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의 장의위원회에 정부 인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남북 고위 당국자간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반응은 일단 신중하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측 조문단이) 조문을 위해 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우리 당국과 면담이 계획된 것이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북측의 면담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북측 조문단의 면담 요청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제의해 왔던 정부로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먼저 북측 조문단에 당국간 회동을 제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무엇보다 북측이 조문단 방문 과정에서 철저히 우리 당국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조문단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자상함을 과시하고 우리 사회내 북한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북한 조문단 파견의 목표로 봐야한다"며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 당국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이런 목표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섣불리 만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북측 조문단은 이러한 여러 득실관계를 고려해 서울에 오기 전 이미 남북 당국간 회동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서 당국간 회동 성사 여부는 북한의 방침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005년 8월16일 폐렴 증세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8·15민족대축전'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기남 북측 단장으로부터 쾌유를 비는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 北 인정하길"

미발표 친필 연설문 홈페이지 공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마지막 미발표 연설문이 20일 김대중 평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2005년 6자회담이 있었던 날인 '9·19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이 연설문은 애초 지난달 14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연설을 위해 준비됐지만, 연설을 불과 하루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폐렴 증세로 입원하면서 미발표 원고로 남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연설문에서 "오바마 정권은 (이란과 시리아 등 그간 적대관계였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않고 차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고 위협을 느낀 북한은 극단적 반발 자세로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 상황이 사태를 더욱 촉진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북한이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사생결단의 자세로 생존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많은 사람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을 포기했지만 부시 정부가 당시 합의된 약속을 잇따라 파기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 추방, 핵실험 강행 등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 핵 문제는 전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 한 성공의 가능성은 없다. (결국) 대화와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오늘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길뿐이며 이 외에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근본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체제보장, 북미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진출이며 한국과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시켜 태평양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김 전 대통령의 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 연설문에 대해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원고를 작성하시고도 연설을 못하신 마지막 연설문이 아닌가 싶다. 원고를 작성하시면 항상 연설하셨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매우 귀중한 원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조문단 면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 포함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중 측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 조문단 단장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둘다 김 위원장의 측근중의 측근, 실세중의 실세로 꼽힌다.

올해 83세의 고령인 김기남 비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부터 최측근 역할을 해온 북한 체제 선전의 수장으로서, 체제선전과 주민 사상교육을 책임진 노동당 핵심부서인 선전선동부와 당역사연구소를 관장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겸한 그는 지난 2005년 8·15민족대축전 참석을 위해 북한 당국측 대표단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길에 6·25전쟁 이후 북한 당국 관계자로선 처음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당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북한의 대남 사업의 수장인 김양건(61) 부장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겸했으며,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참사로 외교 전반도 관장하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에 불러들여 면담할 때 배석했으며, 현 회장과는 별도로 만나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과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개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도 내놓았다.

조문단원인 원동연(62) 아태평화위 실장은 20여년간 남북간 주요 고위급 회담과 접촉에 빠짐없이 관여해온, 대남분야 베테랑이다. 또 맹경일 아태위 참사는 2005년 제16차 장관급회담부터 북측 대표단원으로, 2007년 2월 제1차 핵실험(2006.10) 이후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엔 북측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한 주요 실무자다. /연합뉴스

'DJ 마지막 일기' 오늘 공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까지 쓴 100일간의 일기가 21일 공개된다.

DJ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20일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하시기 한 달 전까지 쓴 일기 중 일부를 4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만들어서 내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기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4일 전까지 약 100일동안 고인이 하루하루 느낀 소회와 단상을 다이어리에 메모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일기의 원본은 상당부분 한자로 돼 있으나 DJ 측은 이를 한글로 풀어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번에는 3분의 1 정도 공개된다.

일기에는 김 전 대통령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소회와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틋한 사랑,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저명 인사들과의 만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심경, 남북관계와 관련한 현정부에 대한 인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